

고창 푸드테라피 지정업소 선정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식품·체험관광산업 육성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지난 2일 고창군 부안면 일원의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를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인증업소로 지정하고 현관 제막식 및 메뉴 이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우정 고창군수, 연구관계자,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사업 참여업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은 지역 대표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식품산업육성과 음식문화 체험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창군과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소비자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지역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와 장어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와 가공식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0일에는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음식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한 푸드테라피 개발 메뉴 최종보고회’와 시

식회를 개최했으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을 선보여 푸드테라피 대표 먹거리로써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이번 현관 제막식은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연구사업으로 7개월에 걸쳐 추진된 메뉴개발과 메뉴 리뉴얼 사업에 참여한 외식업소 대상 자생력 강화 지원과 푸드테라피 인증업소라는 현관을 설치함으로써 참여업소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홍보 효과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푸드테라피 6차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과 메뉴 개발 사업에 참여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김형수 대표는 풍천장어 외식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창업에 이르게 됐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는 고창군 지역특산물인 풍천장어의 홍보·판매 등을 위한 시설로 전시홍보관, 판매장(식당), 체험실습실,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에서는 장어탕에 닭을 넣고 끓인 장계탕, 특제 간장소스와 야채를 곁들인 장어까스

비롯해 장어까스샐러드, 특제 칠리소스와 견과류를 곁들인 장어탕수 등 색다르고 맛있는 장어요리들을 맛볼 수 있다.

현재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사업 추진을 통해 고창 관내 외식업소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많아 연구소는 창업 및 참여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 지원 및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복분자와 장어를 활용한 푸드테라피산업육성사업으로 지역 성장동력 육성 및 농어업, 외식업, 가공업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고창 복분자 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 군수는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인증업소 현관 제막식과 개발 메뉴 이진식을 계기로 예비 창업인들이 창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느끼는 부족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이 다양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추진해 농민소득 창출은 물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순창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

서울동대문구·서울대병원 등 대도시 7개 운영

순창군이 다양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추진해 농민소득 창출은 물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군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5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시작되는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시작으로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동대문구는 물론 서울대병원 등 대도시에서 7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추석맞이 순창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순창군이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에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블루베리, 오미자, 아로니아 등 신선한 농산물과 순창의 대표 특산물인 다양한

전통장류제품을 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 인기가 높다.

실제 군은 올해 설명절 4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15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직거래 장터의 또 하나 장점은 믿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유통마진을 줄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농민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농산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구매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군은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전단을 만들고 생산 농민들의 연락처 등을 배부해 재구매가 가능하도록 연결하고 있다.

군은 또 수확기 벼 가격 하락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오는 10월에 우호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산 사상구에서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연계해 쌀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직거래 행사를 추진 중이다.

군은 올해 12월까지 19개 직거래 행사를 개최해 제값받는 산타농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농·특산물 유통 시스템이 있지만 직거래 만큼 소비자와 농민들이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직거래 장터를 강화하고 앞으로 대규모 박람회 행사 등에 순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직거래 창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추석연휴 환경오염예방 위한 특별단속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순창군은 오는 9월 21일까지 추석연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추석 연휴를 전·중·후로 나누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추석전부터 9월 13일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수다량 배출사업장과 자체 처리하여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연휴 중인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상수원수계, 농공단지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연휴가 끝난 후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및 배출시설·방치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오염물질 처리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성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국 환경정책계장은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며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 여러분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수도과(주간 : 650-1711)나 군청 당직실(야간 : 650-1222) 및 해당 읍·면으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증금마을 농촌 운동분야 ‘입선’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할머니 유랑극단 수상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행사에 임실 증금마을이 농촌 운동 분야에서 입선을 차지했다.

이번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전국에서 총 2,664개 마을이 신청하여 시·도별 예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 6개 분야, 30개 팀이 참가해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마음껏 펼쳤다.

콘테스트에 참가한 차지한 임실 증금마을은 “내 나이가 어때서” 할머니 유랑극단(평균나이 80세)이 그동안 마을에서 겪어온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주민간 소통과 노력으로 극복해 온 실제 경험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간의 속마음을 할머니의 일상적인 대화로 진솔하게 풀어내는 멋진 무대를 만들어 농촌 노인들의 노력장과 주민의 단합된 모습을 선보임으로써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으며, 이에 힘입어 입선을 수상하여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자신의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농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을 통해 앞으로 많은 마을들이 콘테스트 행사에 참가하여 농업 농촌의 또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마을 콘테스트는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으며, 주민 스스로 농촌운동을 개선하고, 아름답게 꾸미며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로 주민들에게는 행복을, 찾아오는 도시민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를, 미래의 후손에게는 아름다운 농촌을 물려주기 위해,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을 돕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함께 공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딸기 꽃눈분화 현미경 검사 서비스 ‘환영’

여름철 고온으로 지연 방지 위해

순창군이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딸기 꽃눈분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축서장형 딸기 꽃눈분화 현미경 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혀 딸기재배 농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군은 올해 여름철 고온현상이 심해 꽃눈분화가 어느해 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꽃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모종을 심을 경우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특히 고설재배에서는 꽃눈분화 여부가 양액을 공급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꽃눈분화를 확인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특히 농가들이 꽃눈 분화 되었는데도 정식을 늦추면 저온으로 꽃눈이 자라지 않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꽃눈분화 검정 확인 후 신속하게 정식을 해야 꽃눈발육을 촉진시켜 딸기 수확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꽃눈분화 검정은 딸기의 뿌리와 줄기가 만나는 곳에 있는 생장점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편평하게 생긴 생장점이 꽃눈으로 변화가 되면 비대해지는데 이를 확인하는 데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딸기 전문지도사는 “딸기를 꽃눈분화 확인 없이 조기정식 하는 것 보다 과학적인 판별 후 적기 정식하는 것이 한해 수익을 크게 좌우하므로 검정 서비스를 받아 정식시기를 결정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꽃눈분화 정밀 검사 서비스를 원하는 딸기재배 농민들은 딸기모종을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와 검사받으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축서장형 재배 농가의 딸기묘를 현미경 검정으로 정식 전 꽃눈분화를 확인한 후 정식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저소득층 주거만족도 ↑

남원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한 노력들을 펼쳐 주거 만족도를 높여 가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92가구에 3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된 지붕, 부엌, 화장실 등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95%를 완료하였고, 추석 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

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1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상에 불편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했다.

남원시는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살기 좋고 안정된 주거 공간 마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살기 좋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 하겠다고 전하며, 농협 임실군지부 지부장 및 임실군내 농·축협 조합장 등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지역 건축사 간담회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대한건축사회 고창지역 건축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건축물에 우리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조화시키면서 고창만의 특성과 개성을 갖는 경관을 고려한

건축설계 추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역 건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창지역 건축사회 김상수 회장은 “건축사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며 “고창의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품격 높은 건축설계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돌리사

남원시, 추석 맞이 물가안정 대책마련

남원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제수용품 포함한 성수품 가격조사 및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매점 매석행위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과 생필품 등 32개 품목을 선정해물가조사 실시로 집중관리하고,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장보기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격 표시제 이행, 원산지표기 이행여부, 부정축산물 유통 여부, 개인서비스업소 위생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즐겁고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름철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산품 이용과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 이용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제수용품 합동 단속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지난 1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등 명절을 위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사무소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주민들이 즐겨먹는 음식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지 여부,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점검했다.

최규은 서장은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여 주민들이 추석명절을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와 함께 하도록 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협 임실군지부, 직거래장터 펼쳐

농협 임실군지부(지부장 최 완)와 임실군은 지난 2일에 임실군청 청사내 (후문 주차장 내)에서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추석맞이 임실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임실 관내 농·축협, 임실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임실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석맞이 임실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며 임실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해산물, 사과, 배, 복숭아, 고구마, 오이, 양파, 밤, 대추, 포도, 고춧가루, 잡곡, 포장육류(소·돼지고기), 각종 선물용 치즈 제품 등) 등을 판매했다.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실익 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저렴한 (시중가 보다 10~30% 저렴) 가격으로 공급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겠다고 전하며, 농협 임실군지부 지부장 및 임실관내 농·축협 조합장 등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